

다나카 대형 은행나무

이 신성한 은행나무는 높이가 24.3m, 나무 둘레가 8.5m 이고 수령은 500 년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 은행나무가 토대가 되어 다나카 신사가 건립된 것으로 여겨진다.

다나카 지구에 있어 ‘다나카 대형 은행나무’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으나 정식으로는 ‘위대한 곤젠 은행나무’로 알려져 있다. 곤젠이란 불교의 신(부처 또는 보살)이 모습을 바꾸어 신도의 신으로 나타나는 것을 가리킨다. 이 신불혼효의 표현은 일본 역사에서 매우 잘 나타나며 일본 곳곳에 많은 곤젠이 모셔져 있다.

현지 전설에 따르면 은행나무는 고명한 승려인 홍법대사(774~835 년)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그는 생전에는 구카이라고 알려져 있었으며, 진언종의 창시자였다. 여러 나라를 순회하던 시기, 어느 날 이곳에서 점심을 먹은 구카이는 식사를 마친 후 땅에 젓가락을 꽂았다. 그 젓가락은 구카이의 영력으로 다나카 대형 은행나무로 자라났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두 줄기가 합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독특한 모습의 유래가 되기도 한다.

이 나무에 관한 또 다른 일화로 매년 11 월 말이 되면 하룻밤 사이에 모든 잎이 떨어진다고 한다. 그리고 이를 본 사람은 누구나 불행한 일을 겪게 된다고 한다.

오도(불당)라 불리는 인접한 작은 건물은 다나카 신사이며, 정확한 창건 시기는 불분명하다. 여러 번 재건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1978 년에 재건되었다.